

# 아동의 기질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 1980~2004\*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Children's Temperament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1980~2004\*

천희영(Hui Young Chun)<sup>1)</sup>

## ABSTRACT

This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children's temperament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during the 25 years dating from 1980 consisted of articles from 10 reliable journals related to child studies and analyzed for research frequency, contents, and methodology. Results showed that 51 research articles on children's temperament were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most of them in child studie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educare journals. The main content of research was the role of temperament in development. Most of the studies used methods categorized as quantitative and non-experimental; subjects were more than 100 children younger than school age with their mothers as adult subjects. Instruments validated in Korea and based on the individual approach and quantitative data analysis methods were used frequently.

**Key Words** : 아동 기질(children's temperament), 연구경향(research trends),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

## I. 서론

아동발달에서 사회·정서적 발달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연령에 따른 규칙적인 발달보다는 발달에서의 개인차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

질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아동을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는 견해와 환경적 타인에 의한 수동적인 발달 존재로 보는 견해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아 발달하는 존재라고 보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고신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1)</sup> 고신대학교 인문사회복지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ui Young Chun, Department of Child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Busan 606-701, Korea  
E-mail : chunhy@kosin.ac.kr

는 인식 또한 기질에의 관심을 고조시켰다(Plomin, 1987). 이에 1980년대 영아의 기질 연구가 현저하게 증가했으며(McCall, 1990), 국내에서도 기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예; 정은숙, 1984; 최영희, 1987 등). 창간호부터 2003년까지 「아동학회지」와 「대한가정학회지」에 실린 아동관련 연구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연구의 배경을 제공한 주요 이론들 중 사회정서 영역에서 1990년대 연구를 이끈 이론의 하나가 Thomas와 Chess의 기질 이론이라는 의견(이은혜, 2003)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기질에 관한 연구의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경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통해 그 연구 빈도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아동발달 관련 연구들의 주제와 내용을 「아동학회지」와 「유아교육연구」, 두 대표 학술지에 1976년 이후 게재된 논문을 통해 살펴본 Rhee와 Shin(2000)은 우리나라 아동발달 연구의 47%가 사회·정서 발달 영역의 연구이며, 이는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인지 발달 연구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1991년~2003년까지 발간된 유아교육 관련 6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유아발달에 관한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에서는 발달영역 중 사회성 영역이 28.4%로 인지영역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하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숙·황윤세, 2004).

이 같은 전반적인 사회·정서 발달 연구의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을 발표년도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예화 외 4인(2003)은 유아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1980년~2001년까지의 유아 사회성 발달 관련 학위논문 등 총 1,100여 편의 연구동향을 연구의 내용 중심으로 분석·제시하였다. 유아

사회성 발달 관련 연구가 점차 양적 증가하며 그 하위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는 있으나 기질을 다룬 연구는 66편(5.8%)에 불과했다. 이은혜(2003)는 기질 연구가 1980년대(1편)에 비해 1990년대(9편)에 활발해졌으며, 이들 연구의 기반 이론은 모두 Thomas와 Chess(1977, 1986)의 기질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아동발달 관련 학술지 5종류를 창간호부터 분석하여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의 주제 영역별 분포를 조사한 박영애(2003)는 12개의 사회·정서 발달의 주제 영역 중 사회성 영역의 주제가 30.4%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반면 기질 영역이 다루어진 비율은 1.9%에 불과하다고 했다. 1990년대 사회·정서 발달 연구가 급성장한 가운데 기질 영역의 연구는 1990년대 사회·정서 발달 연구의 2.3%,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1.6%로 다른 주제 영역에 비해 여전히 연구 비율이 낮았다. 최근 박경자, 신유림과 황혜정(2005)은 국내외의 유아교육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유아교육연구」와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이하 ECRQ)에 게재된 논문 그리고 대학원 유아교육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중 아동발달을 다룬 연구를 대상으로 발달의 영역별 연구 분포를 살펴보고 국내외 모두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그러나 발달의 세부 영역으로서 기질은 1976년~2003년까지의 「유아교육연구」에서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고, 학위논문과 ECRQ에서는 각 8회씩 낮은 비율로 연구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비록 국내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연구 내용적 측면에서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경향에 관한 정보를 Bates(1987)가 제공한 바 있다. Bates(1987)는 1967년~1984년 사이에 행해진 기질에 관한 연구들의 주제를 6가지로 요

약했다. 즉 기질에 대한 측정방법의 타당화 연구, 부모와의 상호작용·애착·인지발달·행동장애와 같은 사회적으로 관련된 과정들에서의 기질의 역할, 기질 지각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요인들, 문화적 요인, 기질의 기저가 되는 생물학적 과정, 그리고 미숙 또는 다운증후군과 같은 위험요인의 영향 등이었다. 이후 아동발달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통합·정리해 주는 「Handbook of Child Psychology」의 기질 부분을 집필한 Rothbart와 Bates(1998)는 기질의 개념과 구성요인, 측정법, 안정성과 변화, 애착·적응과 기질의 관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아동발달 연구경향은 사회·정서 발달 영역의 연구 비율이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높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의 하위영역인 기질은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연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빈도만으로는 기질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기질을 연구변인으로 하되 어떠한 세부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질 외에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아동 연구의 주제 또는 내용으로 기질이 다루어진 경향을 살펴보는 데서 나아가, 아동의 기질에 관한 연구들의 연구방법론적 경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연구의 경향은 연구주제 또는 내용뿐 아니라 연구의 수단이 되는 연구방법론적 경향의 파악을 통해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 관련 연구들의 방법 동향만을 분석한 연구(예; 이종희·조성연·김선영, 2004 등)도 있으나 연구경향을 분석한 관련 선행연구 다수(예; 허우정, 2002 등)가 연구의 주제 빈도와 함께 방법론

적 분석을 병행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연구의 경향으로서 연구방법론 분석을 시도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그 분석대상을 단일 학술지(한태숙·김연·황혜정, 2005) 또는 동일 분야의 학술지(이종희 외, 2004; 최미숙·황윤세, 2004; 허우정, 2002), 학위논문(예; 조은경, 1993 등), 학술지와 학위논문(박경자 외, 2005) 등으로 달리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연대에 따른 연구 빈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고,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영역의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기질 관련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1980년 아동 관련 연구의 원동력을 제공한 한국아동학회의 「아동학회지」 창간호가 발간된 이후 최근 2004년까지의 25년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기질 관련 연구의 발표 빈도를 조사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각 측면에서의 연구경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아동의 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한국 아동의 기질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란 발달 심리학적으로 출생~학령기까지의 아동 기질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하는 연구로 정의되었으며, 국내에서 아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서 발행하는 권위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이었다. 분석대상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학문 분야와 분야별 권위있는 학술지의 선정 절차에 따라 표집되었다.

첫째, 국내에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의 선정에 위해 한국 사회에서의 발달심리학 연구의 특성(황상민·김도환, 2003), 1980년 이후의 한국 아동발달 연구에서의 아동학의 역할과 학문적 관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박영애(2003)가 국내 학술지에 실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관련 연구들의 동향 분석을 위해 발달심리학, 아동학, 가정학 분야의 학술지를 선정했던 점, 그리고 유아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유아교육 분야에서 유아발달 연구의 동향을 분석했던 연구들(박경자 외, 2005; 최미숙·황운세, 2004; Rhee & Shin, 2000)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아동학, 발달심리학, 가정학, 유아교육학 및 보육학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둘째, 타당하고 신뢰로운 연구들을 표집하기 위해 2005년 4월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로 등록된 학술지 중에서 이상의 네 가지 학문 분야의 학술지 목록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 분야에서는 「아동학회지」(한국 아동학회, 1980년 창간), 발달심리학 분야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한국심리학회, 1988년 창간)과 「인간발달연구」(한국인간발달학회, 1994년 창간), 가정학 분야에서는 「대한가정학회지」(대한가정학회, 1959년 창간)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한국가정관리학회, 1983년 창간), 유아교육학 및 보육학 분야에서는 「유아교육연구」(한국유아교육학회, 1976년 창간), 「미래유아교육학회지」(미래유아교육학회, 1994년 창간), 「열린유아교육연구」(열린유아교육학회, 1996년 창간), 「유아교육학논집」(중앙유아교육학회, 1997

년 창간) 및 「한국영유아보육학」(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4년 창간)등의 학술지가 선정되었다.

셋째,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학술지별로 분석대상 연구의 시기를 1980년~2004년으로, 핵심어를 ‘기질’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핵심어가 제시되어있지 않는 경우는 연구 제목에 ‘기질’을 포함하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넷째, 검색된 논문 중 학령기까지의 아동 기질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하는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논문의 원문을 확보하였다.

## 2. 분석 기준과 방법

선정된 연구들을 내용분석하되 크게 세 부분 즉, 연구의 발표 경향, 연구내용의 경향, 연구방법론의 경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연구의 발표 경향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의 발표 빈도가 연대와 학술지 분야별로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연대는 1980년 이후 2004년까지 5년 단위의 5가지로, 학술지 분야는 아동학, 발달심리학, 가정학, 유아교육 및 보육의 4분야로 분류되었다.

### 2) 연구내용의 경향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들의 내용 경향은 연구 주제, 연구변인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주제는 1967년~1984년 동안 행해진 기질 관련 연구의 집약된 주제 6가지(Bates, 1987)와 1980년대 중반기까지의 아동기질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논쟁점과 접근의 틀(Rothbart & Bates, 1998)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범주로 결정되었다. 즉, 기질의 개념과 접근법, 기질의 안정성과 변화, 기질 측정방법의 타당화 연

구, 발달에서의 기질 역할, 기타로 연구주제를 분류하였다. 기질의 안정성과 변화는 종단적 및 횡단적으로 기질의 특성 변화 또는 안정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령은 물론 성에 따른 기질의 변화 연구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타 주제로는 문화적 요인, 기질 기저의 생물학적 요인, 다운증후군과 같은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연구변인의 분석은 기질과 어떤 변인이 함께 연구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기질 외 연구변인의 범주를 인지, 정서, 신체, 언어, 사회성, 성, 연령, 기타 및 생태환경의 9가지로 분류하였다. 사회성 영역에는 애착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 행동문제, 사회적응 등의 하위 범주들이 포함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변인을 측정할 경우, 그 변인은 부모-자녀 관계 변인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같은 연구변인의 분류는 아동과 성인 측정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용되었다. 둘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 관계를 통해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의 내용을 알고자, 질적연구, 도구의 타당화 연구를 제외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기질 및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별, 측정대상인 아동과 성인별로 분류하였다.

### 3) 연구방법론의 경향

연구방법론적 경향은 연구자의 수, 연구유형 및 접근법, 연구대상의 수와 특성 및 표집지역,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등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연구의 유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및 문헌고찰에 의한 문헌연구로 대별하였다. 양적연구는 수량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다시 실험연구와 비실험연구, 타당화 연구로 분류되

었다. 실험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해 조작 또는 처치를 가한 연구, 비실험연구는 자연적인 상황을 그대로 두고 실상을 파악한 연구(이은혜 · 이미리 · 박소연, 2005), 타당화 연구는 연구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질적연구는 현상학적 ·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현장 작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은혜 외, 2005)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로 보기에 미흡하더라도 질적분석을 하였다 고 기술된 연구는 질적연구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접근법은 행동발달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시간 경과와 관련하여 연구할 때 구분되는 종단적 접근과 횡단적 접근(이은혜 외, 2005)으로 대별되었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수 즉 표집 크기는 10명 미만, 10명~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200명 미만, 200명~300명 미만, 300명 이상의 6가지로 분류되었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기질을 측정할 연구대상 아동의 발달 단계(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학령전기 및 학령기), 성인 연구대상 즉 단순히 아동의 기질이나 아동 관련 변인 측정에의 반응자가 아닌 자신과 관련된 변인의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 성인 연구대상의 종류는 모, 부, 모와 부, 모 또는 부, 모(또는 부모)와 교사, 교사로 대별되었다. 연구대상의 표집지역은 국내, 국외, 국내 · 외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자료의 수집방법으로 첫째, 기질의 측정방법을 관찰, 면접, 질문지, 검사 및 척도, 신체측정 및 질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 및 척도의 경우, 종류를 국외도구, 국외도구의 수정 · 일부 선정 도구, 국내 타당화된 도구, 국내 타당화된 도구의 수정 · 일부 선정 도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번역된 국외도구의 문항내용 또는 어머니와의 면접 내용을 추가한

문항내용을 기초로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아동에서의 타당성을 확인한 도구들은 국내에서 타당화된 도구로 간주하였다. 나아가 도구의 기초를 제공한 기질의 개별적 접근, 성격심리학적 접근, 심리 생물학적·생리학적 접근(천희영, 1992)별로 해당 도구들을 분류하였다. 둘째, 기질 외 연구변인의 측정방법 역시 관찰, 면접, 질문지, 검사, 신체측정 및 질적 방법으로 분류되었다.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으로 대별되는 자료의 분석방법에서 양적분석을 다시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로, 추리통계를 모수통계와 비모수통계로 나누었다. 기술통계에는 빈도, 평균, 범위 등의 기술통계 기법만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해당되었다. 추리통계 중 모수통계는 t검증, 단일분산분석(ANOVA), 공분산분석(ANCOVA), 상관관계분석 등을 포함하는 기초통계와, 다분산분석(MANOVA), 중다회귀분석, 중다판별분석, 구조방정식모델링(공분산구조분석), 군집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포함하는 고급통계로 분류되었다. 모집단의 정상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비모수적 방법에는 카

이, 피셔, 맥네마, 코크란 검증과 각종 순위검증 방법들(예; 맨-휘드니U, 윌콕슨 등), 특수상관관계 기법(예; 등위, 양분, 람다 등) 등이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양병화, 2004).

이상과 같은 세 부분의 내용 분석과정에서, 분석 기준별 분석방법에 따라 해당 빈도를 분석하였고, 필요에 따라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질 관련 연구의 발표경향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들이 발표 연대별·학술지 분야별로 발표된 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았다.

연대별로 보았을 때, 1980년~2004년까지의 25년간 기질 관련 연구는 총 51편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발표된 연구가 전혀 없으나, 1980년대 후반기 2편, 1990년대 전반기 8편, 후반기에 15편이 발표되

<표 1> 발표 연대별·학술지 분야별 연구의 빈도

연 대	학술지 분야				계
	아동학 <sup>a</sup>	발달심리 <sup>b</sup>	가정학 <sup>c</sup>	유아교육·보육 <sup>d</sup>	
1980~1984					
1985~1989	1	1			2
1990~1994	6	2			8
1995~1999	7	1	3	4	15
2000~2004	8	2	5	11	26
전 체	22	6	8	15	51

a. 아동학회지

b. 인간발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c.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d.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유아교육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 26편으로 편수가 늘어 기질 관련 연구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술지 분야별로는 아동학 분야의 「아동학회지」, 발달심리 분야의 「인간 발달연구」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가정학 분야의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그리고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유아교육연구」·「미래유아교육학회지」·「한국영유아보육학」 등의 세 학회지에서 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열린유아교육연구」와 「유아교육학논집」에서는 관련 연구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회지」에 가장 많은 편수인 22편이 발표되었고, 유아교육·보육 분야 15편(학회지당 평균 5.0편), 가정학 분야 8편(학회지당 4.0편), 그리고 발달심리 분야에서 6편(학회지당 평균 3.0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발표 연대와 학술지 분야를 관련지어 볼 때, 1990년 이후 아동학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발달심리 분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2편씩 소수의 연구가 각각 지속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에는 가정학,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기질 관련 연구의 발표가 함께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 전반기까지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학회지 모두가 창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학,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는 기질에 관한 연구가 전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내용의 경향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의 내용 경향을 알기 위해서 어떤 연구주제와 연구변인들이 다루어졌는

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 분석 범주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질의 안정성과 변화’, 그리고 ‘기타’의 단일 주제를 다룬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발달에서의 기질 역할’ 주제가 36편(70.6%)의 연구에서, ‘기질 측정도구의 타당화 또는 개발’ 주제가 3편에서 단일 주제로 다루어졌었다. ‘기질의 개념과 접근법’ 주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에 관한 질적연구(천희영, 1997) 1편에서 다루어진 바 있었다. 두 가지의 범주가 복합적으로 연구주제로 채택된 연구는 모두 11편이었다. ‘기질의 발달에서의 역할’과 ‘기타 문화 요인’을 함께 다룬 경우는 연변조선족과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기질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머니의 자녀 기질 지각 차이에 관한 연구(원영미·박혜원·이귀옥, 2004)였다. 또 ‘측정도구의 타당화·개발’ 주제와 ‘기타 문화 요인’을 함께 다룬 연구로는 RITQ의 타당화 과정에서 미국, 대만의 기질 자료와 한국 유아의 기질 자료를 비교한 최영희(1988)의 연구가 있었다. 곽혜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를 포함한 9편의 연구는 성과(또는) 연령에 따른 ‘기질의 안정성과 변화’ 및 ‘발달에서의 기질 역할’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1990년 이후 5년 단위로 나뉜 3개 연대와 학술지 4개 분야 모두 ‘발달에서의 기질 역할’을 주제로 한 연구가 6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 연구 51편 중 도구의 타당화·개발 주제를 포함하는 연구 4편과 질적 연구 1편을 제외한 양적분석 연구 46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이상과 같은 연구주제들을 다룰 때 기질 외에 어떤 변인들이 함께 연구되었는

<표 2> 기질 외 연구변인의 영역별·측정대상별 측정 빈도

측정 대상	연대·학술지분야	연구변인의 영역											계		
		인지	정서	신체	언어	사회성			성	연령	기타	생태 환경			
						부모- 자녀관계	행동 문제	사회 적응							
아 동	연대	85~89	1						1					2	
		90~94			1		1			3		1		6	
		95~99			1		3			9	3		2	18	
		00~04	3	6		1			7	14	12	9	5	57	
	학술지 분야	아동학	1	4			4			10	5	3	2	29	
		발달심리	1		2	1				1	1	3	1	10	
		가정학							1	3	3		1	8	
		유아교육·보육	2	2					6	12	7	4	3	36	
		전 체	4	6	2	1	4		7	26	16	10	7	0	83
		연대	85~89					1					2		3
90~94					4								4		
95~99		1	1(1)		16(4) <sup>a</sup>					1(1)	3(1)		22		
00~04		2			17(1)			1		1	7	6	34		
성 인	학술지 분야	아동학		1								2		17	
		발달심리			1(1)		3					1(1)	1(1)	6	
		가정학		1			14(2)					3		18	
		유아교육·보육		1			7(1)			1		1	4	8	22
		전 체		3	1(1)		38 <sup>b</sup> (5)			1		1	10(1)	9(1)	63

- a. 해당빈도 중 기질측정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된 변인의 빈도
- b. 해당빈도 중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양육경험' 빈도 1이 포함되어 있음

지를 변인의 영역별, 아동과 성인의 측정대상별로 측정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46편의 양적분석 연구에서 기질 외 연구변인이 측정 또는 조사된 빈도는 아동이 83회, 성인이 63회로 아동 관련 변인들이 다루어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을 측정 대상으로 한 변인의 경우, 사회성 영역의 변인 즉, 애착을 포함하는 부모-자녀 관계, 행동문제, 사회적응 관련 변인의 측정 빈도가 3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사회적응

관련 변인의 빈도가 26으로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발달영역 중에서는 정서(6회), 인지(4회), 신체(2회), 언어(1회) 영역의 순으로 관련 변인들이 다루어졌으며, 성과 연령은 각각 16회, 10회로 단일 변인으로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기타로 분류되는 변인은 7회 연구에 포함되었다. 성인을 측정대상으로 한 변인의 영역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 변인들이 38회 다루어져 사회성 영역의 변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사회적응(1회), 연령(1회),



정서(3회), 신체(1회)와 같은 발달영역의 변인은 소수 다루어졌으나 기타, 생태환경 영역의 변인이 각각 10회, 9회 다루어짐으로써 아동 대상의 측정변인 영역들과는 다른 빈도 분포를 보였다. 또한 기질 측정 대상자로서 연구에 참여한 성인은 부모-자녀 관계 영역의 변인들의 측정에 추가로 반응한 빈도가 5회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표된 연구 편수에 대한 연구변인의 수 비율을 고려할 때, 아동을 측정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연구,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기질 외 변인이 편당 2.0개 이상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하여 성인을 측정 대상으로 한 경우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각각의 후반기, 그리고 가정학과 유아보육·교육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기질의 변인의 수가 1.5개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연구변인들의 영역별 측정 빈도 분석에서 나아가 어떤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빈번히 선정, 측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기질은 상관연구를 포함하여 43회 독립변인으로 다루어졌으며, 성과 연령 변인 외의 독립변인인 미숙아와 만숙아(박혜원·곽급주·정철주, 1994),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유무(최영희, 1987)에 따른 종속변인으로 2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립변인으로서, 기질을 제외한 아동 관련 변인들 중에서는 아동의 성과 연령 변인이 16회, 10회로 가장 빈번히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달 영역 중에서는 언어 영역을 제외하고, 사회성 영역의 변인이 10회, 정서 영역 5회, 인지 영역 4회, 신체 영역 2회의 순으로 독립변인으로 많이 선정,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관련 변인 중 독립변인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 변인(30회)이었다. 어머니의 정서와 신체·인성·기타 및 부부관계 특성 관련 변인들이 가족 생태환경 변인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머니 외의 성인으로서 교사 관련 변인, 유아교육·보육시설 환경 관련 변인, 문화(국가) 변인도 독립변인으로 소수 선정된 바 있었다.

종속변인은 독립변인과 대조적으로, 아동 관련 변인의 선정 빈도(31회)가 성인 관련 변인의 선정 빈도(8회)보다 대조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관련 변인으로는 1회씩 선정·연구되었던 정서조절과 정서단어 습득을 제외하면 사회성 영역에 속하는 변인들이 모두 종속변인으로 27회 역할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의 사회성 발달 변인들, 그리고 가정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환경에서의 적응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인 관련된 종속변인 8가지는 모두 부모-자녀 관계에 관련된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독립변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아버지의 훈육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특성 관련 변인이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 3. 연구방법론적 경향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은 연구자의 수, 연구유형 및 접근법, 연구대상의 수와 특성, 표집지역,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분석방법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자의 수를 살펴본 바, 전체 51편의 분석대상 연구 중 27편(52.9%)이 1인, 15편(29.4%)이 2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5편이 3인, 3편이 5인 이상, 1편이 4인의 연구자가 참여한 연구로 나타났다. 2인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 중 6편은 학위논문인 점을 감안할

때 과반수 이상의 기질 관련 연구가 연구자 1인에 의한 단독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5인 이상의 연구 두 편(정옥분 외 4인, 2002, 2003)에는 외국 연구자가 1인 포함되어 있어 국제 협동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유형을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로 나누었을 때, 문헌연구는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고, 질적연구는 아동학 분야에서 1990년대 후반 1편(천희영, 1997)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양적연구 50편은 실험연구 9편, 비실험연구 37편, 타당화 연구 4편으로 그 유형이 나뉘어졌다. 실험연구는 모두 기질이 아닌 유아의 애착행동(예; 홍계옥, 1993 등), 행동억제(예; 정옥분 외, 2002 등), 지능(박혜원 외, 1994), 그리고 어머니와 유아간 과제해결시의 상호작용(나유미, 1999), 어머니의 통제책략(곽혜경·김압이·장미자·한유미, 1997), 또는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곽혜경·조복희, 1999)과 같은 변인의 측정을 위해 조작이 개입된 연구들이었다. 비실험연구는 다른 연구유형

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22편이 행해졌고, 학술지 분야로서는 아동학과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화 연구는 연구의 주요 목적이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에 있는 연구로서, 국내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 연구(천희영, 1991), 그리고 CBQ(이경옥, 2004), IBQ(위영희, 1994), RITQ(최영희, 1988)의 타당화 연구들이 행해진 바 있었다.

분석대상 연구들을 연구접근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종단적 접근에 해당하는 단기종단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와 발달심리와 가정학 분야에서 1편씩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옥분 등(2002)이 2~4세간 행동억제의 변화를, 김민화·곽금주와 김수정(2004)이 8, 9개월~14, 15개월까지 3개월 간격으로 측정된 상호주의 능력(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단적 접근으로 기질 자체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동일한 시점에서 연령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횡단적 접근에 의한 연구는 9편(17.6%)이었다. 이 중에서 기질의 연령

〈표 3〉 기질 측정 아동의 발달단계별 연구 빈도

연대 · 학술지분야	기질측정 아동 연령			
	영유아기 <sup>a</sup>	학령전기 <sup>b</sup>	학령기	학령전기및학령기
연 대	1985~1989	2		
	1990~1994	2	2	2
	1995~1999	2	11	1
	2000~2004	4	17	5
학술지 분야	아 동 학	4	10	5
	발달심리	4	1	1
	가 정 학	1	5	2
	유아교육·보육	1	14	
전 체	10	30	8	3

a. 출생~3세미만

b.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3세~만7세

차를 분석한 연구는 67주~92주 영아간 연령 차이를 검증 시도했던 박혜원 등(1994)의 연구를 비롯한 5편이었고, 기질 외 변인의 연령차를 분석한 연구는 장영숙과 조정애(2000)의 연구를 비롯한 4편이었다. 나머지 40편의 연구는 단일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14편의 연구(예 : 최영희, 1994 등), 다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25편의 연구(예 : 천희영, 1993 등)가 포함되었다.

기질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자 수가 10명 미만인 연구는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고, 10명~50명 미만인 연구가 5편, 50명~100명 미만인 연구가 8편이었다. 대신 100명~200명 미만 및 300명 이상인 경우는 각 14편, 200명~300명 미만인 경우는 10편으로, 총 38편(74.5%)의 표본 크기가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 중 2000년 이후 발표된 연구가 23편, 아동학과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가 각각 15편, 1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아동과 성인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기질을 측정된 아동의 발달단계별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에서 7세 사이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0편(58.9%)이었고, 10편은 3세 미만까지의 영유아기 아동, 8편은 학령기 아동, 3편은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발표된 연구의 68.3%, 가정학 및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의 82.6%로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대상 연구들 중에서 기질을 측정된 아동 외에 또 다른 측정대상으로 아동을 포함한 경우는 형제의 기질을 측정하고 형제간 기질의 조합, 형제 상호작용 등의 변인을 함께 연구했던 기현

주와 김희진(2004)의 연구가 유일했다. 그러나 성인을 측정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즉, 단순히 아동의 기질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반응자가 아닌 자신과 관련된 변인의 의미있는 측정치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성인을 포함한 연구는 36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성인을 포함하는 연구들의 72.2%인 26편에 유일한 성인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버지는 단독 성인 연구대상으로 한 편인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가 1편(문혁준, 2000), 응답자가 부모라고 되어 있어 아버지, 어머니 중 누가 응답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연구가 4편(예; 원영미 외, 2004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외 성인 연구대상으로는 교사를 단독으로 포함한 연구 3편(예; 장영숙·조정애, 2000 등), 어머니(또는 부모)와 함께 교사를 포함한 연구는 3편(손인숙·송진숙, 2000; 이희선, 1994; 조혜진·이기숙, 2004)이었다. 어머니만을 성인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80.0%), 아동학 학술지 분야(68.2%)에서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기질을 측정된 경우는 어머니의 기질을 측정된 연구 4편(예; 한세영·박성연, 1996 등)과 교사의 기질을 측정된 연구 1편(장영숙·조정애, 2000) 등 모두 5편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한 지역은 49편의 경우 국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편의 연구는 국내 아동과 중국연변 조선족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원영미 등(2004)의 연구, 직접 국외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대만의 아동기질 측정 자료와 한국 아동의 자료를 비교했던 최영희(1988)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표 4> 기질평정척도의 종류별 · 측정대상의 발달단계별 측정 빈도

연대 · 학술지 분야	국외도구				국외도구의 수정 · 일부				국내타당화도구				국내타당화도구의 수정 · 일부												
	영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기 성인기 <sup>a</sup>	영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기 성인기	영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기 성인기	영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기 성인기	영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기 성인기										
85~89	1				1																				
연대	90~94	1				2				2	3	2	2												
	95~99	2				3				1	2	1	6	1	1										
	00~04	3	2	1	2	3	2	2	8		1	6													
학술지 분야	아동학	2				2				3	1	2	11	3	2										
	발달심리	1	1	1	1				2				2				1								
	가정학	1	3	1	1				2				1												
	유아교육 · 보육					2				2				6				1				6			
	전체	4	4	2	0	2	6	5	4	4	17	3	1	1	8	0	0								

a. 기질 측정대상이 성인인 경우

한편, 어떠한 자료수집방법이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심층면접에 의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조사한 질적연구 1편(천희영, 1997)을 제외한 50편의 연구가 기질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아동과 성인의 기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기질 측정대상의 연령 또는 발달단계별로 어떠한 기질평정척도가 사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질적연구 1편을 제외한 50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 측정 빈도 56<sup>1)</sup>과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빈도 5 등 총 빈도 61에 대해 기질평정척도 종류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들

에서 사용된 기질평정척도의 종류로서, 국내에서 타당화된 도구가 25회(41.0%), 국외의 도구를 수정하거나 그 일부를 사용한 도구의 사용 빈도가 17회(27.9%)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외도구를 번역한 도구, 국내에서 타당화된 도구를 수정하거나 그 일부를 선정한 도구가 각 10회, 9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발달단계 내에서 도구의 종류를 비교했을 때, 영 유아기는 국외도구와 타당화된 국내도구가 4회씩, 학령기는 국외도구의 수정 또는 일부로 구성된 도구 5회로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 학령전기는 국내에서 타당화된 도구로서 기질을 측정하는 빈도가 17회(48.6%)로 두드러졌다. 아울러 연구가 발표된 연대를 중심으로 보면 2000년도 이후 보다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분야 중심으로 보면 아동학 분야에서는 국내 타당화된 도구(57.7%)가, 가정학 분야에서는 국외도구(55.6%)가, 유아교육 · 보육 분야에서는 국내 타당화된 도구의 수

1)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3편 중 질적연구 1편을 제외한 2편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빈도를 분리하고, 동일 아동에 대한 평정자가 2명인 경우(예; 최영희, 1993 등) 평정자별 빈도를 분리하였다. 이에 총 빈도는 총 분석대상 연구 편수 51보다 크다.

정·일부 구성 도구(41.2%)가 다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발달심리 분야에서는 국내 타당화 도구의 수정·일부 구성 도구를 제외한 3가지 도구가 동일한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구에서 사용된 기질평정척도의 기초가 된 도구 즉, 기질평정척도에서 채택한 기질 개념이 어떠한 기질 접근에 기초한 것인지, 번역 또는 국내에서 타당화된 도구 그리고 수정되거나 그 일부가 선정된 도구의 경우 원래 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질적연구 1편을

제외한 50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에서 사용한 기질평정척도의 기초가 되는 기질 접근법과 그 도구의 기초가 된 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표 5>에 의하면, 아동의 기질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개별적 접근에 기초한 경우가 38회로 최다 사용되었으며, 다른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6가지의 기초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PTQ와 RITQ(및 어머니 면접)에 기초한 천희영(1991, 1992)의 도구와 천희영(1992)의 도구를 요인분석하여 영유아용으로 개

<표 5> 기질접근법과 기초도구별 기질 측정도구의 사용 빈도

연대·학술지분야	개별적 접근					성격심리학적접근								심리생물학적·생리학적 접근		
	PTQ <sup>b</sup>	MCTQ <sup>c</sup>	RITQ <sup>d</sup>	TTQ <sup>e</sup>	DOTS-R <sup>f</sup>	ICQ <sup>g</sup>	EAS <sup>h</sup>	CCTI <sup>i</sup>	IBQ <sup>j</sup>	CBQ <sup>k</sup>	ECBQ <sup>l</sup>	TBAQ <sup>m</sup>				
85~89			2													
연대	90~94	7				1	3		1							
	95~99	8	1		2	/1 <sup>a</sup>	2/2			1						
	00~04	12	1	2		2/2	2	2	1	3	1	2				
학술지분야	아동학	15	1	1		1/1	1	3/1		1	1				1	
	발달심리	1		1		1		3		1		1				
	가정학		1	2	1			1/1	2						1	
	유아교육·보육	11			1	/2						3				
전체	27	2	4	2	2/3	1	7/2	2	2	4	1	2				

- a. 성인용 사용 빈도
- b. 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Thomas & Chess, 1977)
- c. Middle Childhood Temperament Questionnaire (Hegvik, McDevitt, & Carey, 1982)
- d. 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Carey & McDevitt, 1978)
- e.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 (Fullard, Carey, & McDevitt, 1984)
- f.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Windle & Lerner, 1986)
- g. Infant Characteristic Questionnaire (Bates, Freeland, & Lounsbury, 1979)
- h.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아동용 및 성인용) (Buss & Plomin, 1984)
- i. Colorado Childhood Temperament Inventory (Rowe & Plomin, 1977)
- j.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Rothbart, 1978)
- k.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Rothbart, 1996) 또는 Very Short Form of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Putnam & Rothbart, 2002)
- l.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Rothbart & her students, 2002)
- m.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Goldsmith, 1988)

발한 박경자(1999)의 도구, PTQ에 기초한 홍계옥(1995, 홍계옥·정옥분, 1995 개인용)과 원영미(1990)의 도구, 요인분석된 DOTS-R(김현옥·우남희, 2004), ICQ(박혜원 외, 1994), MCTQ(최영희, 2004), RITQ(최영희, 1988) 등 국내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친 9가지 도구, 그리고 이 도구들을 수정하거나 그 일부로 구성된 도구들의 사용(예; 최영희, 1994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PTQ는 2000년 이후(42.9%), 아동학(60.0%)과 유아교육·보육(73.3%)분야의 도구 사용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심리학적 접근의 EAS는 7회(예; 정현희·최경순, 2001 등), CCTI는 부와 모를 대상으로 2회(문혁준, 2000)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생물학적·생리학적 접근의 IBQ(2회; 김민화 외, 2004; 위영희, 1994), CBQ(4회; 원영미 외, 2004 등), ECBQ(1회; 김민화 외 4인, 2003), TBAQ(2회; 정옥분 외, 2002, 2003)의 4가지 도구를 기초로 한 측정도구 역시 모두 9회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국내 타당화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도구는 IBQ(위영희, 1994)와 CBQ(이경옥, 2004)였다. 영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의 RITQ와 ICQ, 심리생물학적·생리학적 접근의 IBQ, ECBQ, TBAQ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성인의 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의 DOTS-R(예; 장영숙·조정애, 2000 등)과 성격심리학적 접근의 EAS(예; 김경희, 2004 등)가 각 3회와 2회 사용된 바 있었다. 발표 연대로는 2000년 이후, 학술지 분야별로는 아동학, 발달심리, 가정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6~8가지의 도구가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 변인 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의 측정방법 경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검사 및 척도에 의한 연구변인 측정방법의 빈도가 74(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찰 21회, 질문

지 조사 9회, 면접 2회 및 신체측정 2회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질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4가지의 방법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아동학과 발달심리 분야의 학술지에서 면접 조사나 신체측정이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변인 측정방법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찰에 의한 측정변인은 실험연구 유형의 9편에서 상호주의 능력(김민화 외, 2004)을 비롯한 6가지 변인, 그리고 유치원의 일과 중 아동이나 아동-또래, 또는 아동-교사간의 상호작용 변인들이었다(예; 민혜영, 1999; 엄정애, 1994 등). 면접 조사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반응과 정서조절전략 두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희(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문지 조사에 의해 가정환경이나 가족의 특성(예; 원영미 외, 2004), 보육경험(조혜진·이기숙, 2004)을 포함한 9가지 변인이 측정되었다.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들의 자료분석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분석방법 범주에 따라 해당 빈도를 조사하였다. 질적 분석에 의한 연구 1편을 제외한 50편의 연구 중 기술통계치만을 산출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고, 대다수인 44편의 연구가 추리모수적 방법의 기초와 고급 분석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는 상관관계 분석과 평균의 차이검증이, 후자의 경우는 회귀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리모수 기초 및 고급 통계분석의 적용은 평균의 차이검증과 회귀분석(임희수·박성연, 2002; 한세영·박성연, 1996) 또는 요인분석(위영희, 1994)이 이루어진 경우였으며, 추리비모수 통계분석은 표본의 크기가 33명으로 적은 아동들의 집단 차이나 변인간 관계를 알기 위해 적용된 바 있었다(이완정, 1999). 추리모수 고급과 추리비모수 통계분석이 함께 적용된 경우는

도구의 타당화 연구(천희영, 1991)와 5~8개월아의 기질 조사 연구(최영희, 1987)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대 또는 학술지 분야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의 경향에서는 1990년대와 아동학 분야의 학술지의 연구들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분석이 시도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1980년~2004년까지 25년간 국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들의 내용과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의 경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 관련 연구의 발표 빈도를 살펴본 결과, 1980년 이후 25년간 총 51편이 발표되었으며, 1980년대 2편의 연구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에 23편, 2000년대에 26편으로 발표 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1980년대 미국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에 관한 연구 증가(서봉연·송명자, 1988), 그리고 Thomas와 Chess의 기질 이론이 1990년대 아동학의 많은 연구를 이끌었다(이은혜, 2003)는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간접적으로는 20세기 후반 유아기 사회성 발달 연구가 급성장 했으며(박영애, 2003), 2000년 이후 학술지의 발간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논문 수가 급증함(박경자 외, 2005)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학술지별로는 아동학 분야에서 22편,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15편으로 다수 발표된 반면 발달심리와 가정학 분야에서의 발표 편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학 분야의 단일 학회지인 「아동학회지」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기질 관련 연구가 다수 발표된 것은 아동학의 관심과

기능이 아동발달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의 제공 쪽으로 확장되어가야 함을 인정하고 적응/문제장애/스트레스, 정서/애착과 함께 기질 연구에 노력한 결과(박영애, 2003)로 해석되었다.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는 특히 2000년 이후 기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유아교육·보육에서 발달 연구가 학습자인 아동의 이해와 교육방법 논의에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고조(최미숙·황윤세, 2004),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경향(박경자 외, 2005)을 뒷받침해 주었다.

연구의 발표 빈도와 관련하여 주목된 것은 선행연구들의 연구 빈도 보고의 신뢰성이었다. 왜냐하면, 1973년~2003년까지의 「유아교육연구」에 발표된 발달 논문 중 기질과 성역할을 주 변인으로 연구한 예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박경자 외, 2005), 「대한가정학회지」와 「아동학회지」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아동의 기질 연구가 10편 발표되었다는 보고(이은혜, 2003),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학술지 중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학술지를 제외한 5개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기질 관련 연구가 1980년대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2003년 연구동향의 발표기까지 10편이 발표되었다는 보고(박영애, 2003) 등은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핵심어로 기질을 제시한, 또는 제목에 기질 변인을 포함한 연구들을 기질 관련 연구로 간주하였으나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주요 목적이나 주요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의 발달 영역을 나누었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연구내용적 측면에서 연구경향을 분석한 결과, 약 71%의 연구들이 연구주제로 아동의 발달에서의 기질 역할을 다루었으며, 이는 기질의 연구변인으로 포함된 변인의 분석 결과에서

도 확인될 수 있었다. 즉, 성인 관련 변인의 수보다 약 1.3배 많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아동 관련 변인들 중 발달 연구에서 기본 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성과 연령을 제외한 연구변인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응, 행동문제, 정서, 기타 및 신체와 언어 발달까지 채택된 연구변인들의 범위는 광범위했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 관련 변인과 가정환경, 그리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환경을 포함한 변인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기질은 대표적인 독립변인의 역할을 하며 가정과 교육기관의 인적·심리적·물리적 환경과 함께 주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영향력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대한 영향 변인으로서의 역할이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유아발달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에서 아동 자신 관련 변인의 연구 빈도가 약 56%, 부모 관련 변인이 약 11%를 차지한다는 최미숙과 황윤세(2004)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질 관련 연구는 부모 특히 어머니 관련 변인의 연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질이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으로서의 부모-자녀 관계 변인들과 함께 빈번하게 연구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대한 기질의 영향이 발달맥락적 입장에서 연구되어야 한다(황상민·김도환, 2003)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특히 종속변인으로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 관련 변인으로 채택된 것들은 국내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박경자 외, 2005)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아동의 기질적 개인차가 발달 과정에서의 행동 및 사회·정서 발달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이경옥, 2004)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유아발달 연구의 경향이 여러 발달 영역을 통합하려는 거시적, 전체적 성격을 갖는다는 지

적(조희숙, 1998, 최미숙·황윤세, 2004 재인용)에도 불구하고 기질을 변인으로 다루는 연구에서 신체·언어·인지 등의 영역 변인들이 함께 다루어진 경우는 소수라고 볼 수 있었다.

셋째, 기질 관련 연구들을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1인의 연구자에 의한 단독 연구가 27편, 2인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15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4인 이상에 의한 공동연구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박경자 등(2005)에 의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즉, 유아교육 분야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유아발달 연구의 연구자 수 경향과 유사하지만 ECRQ의 높은 공동연구 비율과는 대조를 보였다.

연구의 유형으로는 1편의 질적연구 보다 양적연구가 많았고, 양적연구 중에서는 비실험연구가 차지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최미숙과 황윤세(2004)의 연구결과에서 양적연구 중 실험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유아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에서 양적연구의 빈도, 그리고 양적연구 중 비실험연구의 빈도가 높다는 결과(이종희 외, 2004)와는 일관된 것이었다. 연구의 접근법 면에서 크게 종단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단기종단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2편, 횡단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9편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 접근과 단기종단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최미숙과 황윤세(2004), 이종희 등(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기질의 안정성과 변화를 주제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종단적인 접근이 요구되지만 단기종단적으로 추적된 연구변인은 기질이 아닌 다른 변인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연구대상의 수 즉 표집크기가 100명~200명 미만, 300명 이상인 연구가 각각 14편으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인 경우는 모두 38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대별·학술지 분야별 발표 연구수에 대한 비율로 보았을 때, 2000년대 이후 및 아동학,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연구에서 표집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유형 중 비실험연구의 경향에 비추어 수용될 수 있는 결과로서, 이종희 등(2004), 최미숙과 황운세(2004)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한 바 있었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기질 측정 아동, 기질 측정 또는 비측정 성인의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질 측정 아동의 발달지위를 발달단계별로 구분했을 때 학령전기 아동(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3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영유아기 10편, 학령기 8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동학이나 유아교육·보육의 관심이 공통적으로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에 있으며, 생물학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갖는 기질 구인의 독특성, 행동장애에 선행하는 요인으로서의 기질 중요성(McDevitt, 1986)을 고려한 영유아 대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성인 연구대상으로 어머니는 가장 빈번하게 26편의 연구에서 유일한 성인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고 4회 기질 측정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가족구성원만으로 성인 측정대상을 선정한 연구들 중 아버지는 4편의 연구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데 불과했다. 앞서 기질 외 연구변인의 성격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동의 발달맥락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양육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가정 밖 아동의 주요 맥락이 되는 유아교육기관 환경의 주요 제공자인 교사가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들에서 유일하게 가족외 구성원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술지에

서 조차 유아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비해(이종희 외, 2004) 기질 연구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동의 기질 연구가 개별성을 반영하는 기질과 맥락 속성, 그리고 두 요인간의 관계라는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Lerner(1986) 등의 발달맥락적 입장을 지향하는 연구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49편의 연구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졌고, 중국 연변지역에서 직접 표집이 이루어진 연구 1편, 간접적인 자료 분석과정에서 국외 자료를 포함하여 연구한 경우가 1편 발견되었다. 국내외의 연구자간 국제간 협동연구와 함께 국내외로 표집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문화라는 발달맥락에 따른 기질의 발달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추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의 분석에서 기질을 측정할 도구의 종류를 살펴본 바, 국내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친 도구가 25회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특히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뉴욕 종단적 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 NYLS)를 통한 기질 논의(Thomas & Chess, 1977)의 대상이 3~7세 아동이었기 때문에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에 대한 높은 관심이 그들의 측정도구 타당화를 활발하게 시도한 결과로 보였다. Thomas와 Chess가 중심이 되는 개별적 접근의 PTQ가 국내 타당화 과정을 거쳐 9가지 도구로 개발·사용되었음은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대조적으로, 성인, 학령기 아동, 영유아들의 경우는 국내에서 타당화된 도구보다는 국외도구를 번역하거나 그 도구를 수정 또는 일부로 구성된 도구로 기질을 측정함으로써 도구의 적절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질평정척도의 기초를 제공하는 접근법과 그에 속한 도구들을 중심으로 사용된 빈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별적 접근에 기초한 도구의 사용 빈도가 성격심리학적 접근이나 심리생물학적·생리학적 접근에 의한 도구의 사용 빈도보다 높고 해당 도구의 종류도 PTQ를 비롯하여 6가지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서로서의 기질을 강조했던 심리생물학적 접근의 Rothbart와 Derryberry(1981), 그리고 심리생리학적 접근의 Goldsmith와 Campos(1982)의 입장에 기초한 도구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질 차원이 개별적 접근을 취하는 Thomas와 Chess 등이 제시한 이론적 체계의 확장 또는 재조직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천희영, 1992)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아동 기질 측정에서 개별적 접근의 역할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질 외 연구변인들의 측정방법별 빈도분석에서는 검사 및 척도의 사용이 68.5%로 높게 나타났고, 관찰, 질문지 조사, 면접, 신체측정의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최미숙과 황윤세(2004)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지만, 유아교육 관련 학술지에서의 자료수집방법을 분석하고 질문지 조사 방법의 적용 빈도가 약 50%라는 이종희 등(200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비록 이은혜(2003)가 광복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아동학 관련 논문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질문지 조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했으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질문지 조사 속에 평정척도를 질문지 형식으로 실시한 경우들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질적분석에 비해 양적분석이, 양적분석 중에서는 추리모수 고급과 기초 수준의 통계분석 방법이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 학술지 논문에서

추리모수 기초 방법의 사용 빈도가 고급 방법 사용 빈도의 약 4배라는 결과(이종희 외, 2004)와 다르며, 기질과 함께 다양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량분석, 회귀분석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1990년대부터 사회정서 발달영역의 연구 및 기질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자료분석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었고, 학술지 분야 중에서는 기질 관련 연구의 발표 편수가 많았던 아동학 분야의 아동학회지에서 보다 다양한 자료분석방법이 적용되었음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의 내용 분석 결과, 그 주제와 관련 연구변인의 선정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어머니와 아동과의 관계 특성에 제한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아동발달 연구가 한국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발달현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해야 한다는 요구(황상민·김도환, 2003)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는 보다 다양한 맥락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에 선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나 변산적 변화(Variational Changes)의 분석에서 나아가, 5편에 불과했던 조화의 적절성 모델 검증 시도(예; 최영희, 1993 등)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이론적 연구 부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기질 구조의 논의, 노력한 통제(effortful control)의 구인 확인, 그리고 기질과 발달신경과학간의 관계 연구,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새 조명과 같은 최근 기질 연구 분야에서의 진전(Rothbart, 2004; Rothbart & Bates, 2006)은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기질 연구의 새로운 방향 정립에 좌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러한 연구 내용의 변화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탐색을 요구한다. 특히 기질의 측정에

있어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들 중 연구자가 국내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구에 포함된 기질 차원의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거나(예; 임희수·박성연, 2002) 기질 하위차원의 제시된 신뢰도가 .40으로 낮은 경우(김민화의, 2004)도 있을 만큼 전반적인 신뢰도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은 측정도구의 적절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아울러 부모의 보고, 자연적 관찰, 구조화된 관찰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나은 도구를 개발하되 수렴타당도 뿐만 아니라 기질 구인간의 비관련성 확인 즉 변별타당도의 검토가 필요하며(Rothbart & Bates, 1998), 기존의 발달연구와 달리 기질의 변형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s)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양했던 질적 연구방법을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황상민·김도환, 2003).

본 연구는 연구의 핵심어로서 ‘기질’을 제시하거나 핵심어가 없는 경우엔 제목에 기질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비록 기질이라는 변인명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연구의 변인으로 기질이 포함된 연구(예; 유명희·박성연, 1991; 임연신·현운강, 2002 등)가 있었으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또한 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의 표집에서 학위논문은 제외하였고, 본 연구에서 선정하지 않았던 학술지 분야나 학술지에서 기질 연구가 발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분석대상 연구가 이루어진 학문 분야의 선정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 분류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정서 발달 영역의 기질이라는 특정한 변인에 초점을 두

고,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기질 관련 연구들을 선정하여 그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럼으로써 추후 아동의 기질에 관한 연구가 아동 발달의 다른 분야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 즉 우리나라만의 온전한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론의 기틀을 마련(조성연 외 5인, 2005) 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곽혜경·김암이·장미자·한유미(1997). 3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통제책략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1, 259-282.
- 곽혜경·조복희(1999). 유아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기현주·김희진(2004). 출생순위, 형제 성구성, 형제기질조합에 따른 형제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5(4), 49-70.
- 김경희(2004).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355-370.
- 김민화·곽금주·김수정(2004). 초기 영아기 기질특성에 따른 상호주의 능력의 발달. **인간발달연구**, 11(4), 19-35.
- 김민화·곽금주·성현란·심희옥·장유경(2003). 영아기 정서단어의 습득에서 기질과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4), 39-55.
- 김현옥·우남희(2004). 아동의 기질과 대안적 문제 해결사고 전략의 발달과 그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2), 1-18.
- 나유미(1999).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관련 변인 : 애착과 기질. **아동학회지**, 20(4), 75-89.
-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민혜영(199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과 기질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1), 63-88.
- 박경자(1999).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기질. **아동학회지**, 20(3), 3-17.
- 박경자 · 신유림 · 황혜정(2005). 유아 발달 연구의 경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24(8), 149-167.
- 박영애(2003). II. 사회 · 정서.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 한국무역학회 · 한국아동학회 · 한국행정학회(Vol. 1)(pp.224-241). 서울; 한국학술단체협의회.
- 박혜원 · 광금주 · 정철주(1994). 영아의 기질과 Fagan 지능검사 수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1), 98-109.
- 서봉연 · 송명자(1988). 발달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 1-19.
- 손인숙 · 송진숙(2000).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교육적 신념에 따른 유치원 아동의 적응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421-440.
- 양병화(2004).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 학지사.
- 엄정애(2004). 유아의 충동성 기질 및 사회극놀이 참여도와 자기규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41-58.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 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영미 · 박혜원 · 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간의 관계 :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 위영희(1994). 영·유아 기질측정 척도(IBQ)의 타당화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1), 109-125.
- 유명희 · 박성연(1991).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아동학회지**, 12(2), 173-191.
- 이경옥(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이완정(1999).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기질에 따른 걸음마기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한국영유아보육학**, 18, 175-195.
- 이은혜(2003). 한국아동학의 발전사.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 한국 무역학회 · 한국아동학회 · 한국행정학회(Vol. 1)(pp. 105-125). 서울; 한국학술단체협의회.
- 이은혜 · 이미리 · 박소연(2005).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이종희 · 조성연 · 김선영(2004). 유아교육 관련 학술지에 나타난 연구방법 분석. **유아교육연구**, 24(7), 375-397.
- 이희선(1994).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및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5(2), 117-128.
- 임연신 · 현은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 임희수 ·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영숙 ·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 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전예화 · 최미현 · 천희영 · 서현아 · 황혜익(2003). **유아사회교육**. 서울 : 양서원.
- 정옥분 · Rubin, K. · 박성연 · 윤종희 · 도현심(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 정옥분 · Rubin, K. · 박성연 · 윤종희 · 도현심(2003). 영아기 기질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2-4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29-38.
-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 최경순(2001).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14.
- 조성연 · 이정희 · 천희영 · 심미경 · 황혜정 · 나종혜

- (2005).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신정.
- 조은경(1993). 유아교육에 관한 학위논문의 경향분석 (1986-199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진 · 이기숙(2004). 유아의 사회 · 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24(4), 263-284.
- 천희영(1991).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 천희영(1997).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191-211.
- 최미숙 · 황윤세(2004). 유아발달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24(5), 187-205.
- 최영희(1987). 5-8개월아의 기질 조사 연구. **아동학회지**, 8(2), 1-15.
- 최영희(1988). RITQ의 타당성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 89-102.
-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I) : 조화로운 합치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2), 217-226.
- 최영희(1994).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모델 검증연구(II)-조화로운 합치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아동학회지**, 15(1), 145-157.
- 최영희(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7-32.
- 한세영 ·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한태숙 · 김연 · 황혜정(2005). 「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 1994-2004. **유아교육연구**, 25(3), 219-238.
- 허우정(2002). 유아교육 관련 학술지 수록 논문의 동향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1993).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유형분류와 애착에 대한 유아기질의 영향. **아동학회지**, 14(2), 5-16.
- 홍계옥 · 정옥분(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99-112.
- 황상민 · 김도환(2003). 발달심리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과학철학적 탐색 : 발달현상의 연구와 발달적 맥락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2(1), 1-17.
- Bates, J. E. (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1101-1149). NY : Wiley.
- Bates, J. E., Freeland, A. B., & Lounsbury, M. L. (1979).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50, 794-803.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 Carey, W. B., & McDevitt, S. C. (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ediatrics*, 61, 735-739.
- Fullard, W., Carey, S. C., & McDevitt, S. C. (1984). Assessing temperament in one to three years of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 205-217.
- Goldsmith, H. (1988).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Oregon Center for the study of Emotion technical report No. 88-04*. University of Oregon, Eugene.
- Goldsmith, H. H., & Campos, J. J. (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M. Emde & R. Harmon(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pp.161-193). NY : Plenum.
- Hegvik, R. L., McDevitt, S. C., & Carey, W. B. (1982). The Middle Childhood Temperament Questionnaire. *Journal of Development And Behavioral Pediatrics*, 3, 197-200.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McCall, R. B. (1990). Infant research : Individual differ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36(1), 141-158.
- McDevitt, S. C. (1986).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 A psychometric perspectives.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 Changes, continuity and challenges*(pp.27-38). Hillsdale, NJ : Erlbaum.
- Plomin, R. (1987). Developmental behavioral genetics and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pp.343-414). NY : Wiley.
- Putnam, S. P., & Rothbart, M. K. (2002).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 Rhee, E., & Shin, Y. (2000). Trends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al research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5, 111-121.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1996).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Version 1).
- Rothbart, M. K. (2004). Temperament and the pursuit of an integrated developmental psychology. *Merrill-Palmer Quarterly*, 50(4), 492-505.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Vol. Ed.) & W. Damo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pp.105-176). NY : Wiley.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Vol. Ed.) & W. Damon & R. M. Lerner(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6th ed.)(pp.99-166). NY : Wiley.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Vol. 1, pp. 37-86). Hillsdale, NJ : Erlbaum.
- Rothbart, M. K., & her students (2002).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ECBQ). [http : //darkwing.uoregon.edu/~maryroth/ibqdesc.html](http://darkwing.uoregon.edu/~maryroth/ibqdesc.html).
- Rowe, D. C., & Plomin, R. (1977).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 Assessment*, 41, 150-156.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 Brunner/Matzen.
- Thomas, A., & Chess, S. (1986). The New York Longitudinal Study : From infancy to early adult life.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pp. 39-52). Hillsdale, NJ : Erlbaum.
- Windle, M., & Lerner, R. M. (1986). The "Goodness of Fit" model, temperament-context relations : Interaction or correlation? In J. V. Lerner & R. M. Lerner(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 and children* (pp. 109-119). London, UK : Jossey-Bass.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8일 채택